



Asia

- 북아시아
- 동아시아
- 동남아시아
- 중앙아시아
- 남아시아
- 서남아시아

North Asia
 East Asia
 South-East Asia
 Central Asia
 Southern Asia
 Southwe Asia

L O

America

- 남아메리카
- 북아메리카
- 북아메리카
- 카리브도
- 라틴 아메리카
- 앵글로아메리카

South America
 North America
 Central America
 Caribbean
 Latin America
 Anglo America

V E

Africa

- 동아프리카
- 중앙아프리카
- 북아프리카
- 남아프리카
- 서아프리카

East Africa
 Central Africa
 North Africa
 South Africa
 West Africa

H K

Europe

- 동유럽
- 서유럽
- 남유럽
- 북유럽
- 중앙유럽

Eastern Europe
 West Europe
 Southern Europe
 Northern Europe
 Central Europe



Oceania

- 오스트랄라시아
- 멜라네시아
- 미크로네시아
- 폴리네시아

Australasia
 Melanesia
 Micronesia
 Polynesia

홍콩 여행기
 23-27. JULY. 2013

1일차 - 란타우섬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만나는 홍콩이 바로 란타우섬이다. 란타우섬에는 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유명한 디즈니랜드도 있으며 옹핑빌리지와 타이오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란타우섬 - 타이오 마을

란타우섬의 가장 오래된 어촌 마을. 아직도 수상가옥에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배를 타고나가 핑크 돌고래 투어를 할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해산물 및 건어물을 구입할 수 있다.



란타우섬 - 옹핑 빌리지/포린사

불교를 테마로한 테마 빌리지. 불교 체험관과 불교 관련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원숭이 극장이 있다. 또한 기념품을 살 수 있는 상점과 카페도 있다. 근처 포린사에서 동양 최대의 좌불상도 만나볼수 있다.



란타우섬 - 옹핑360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로 케이블카 탑승 시간인 25분 동안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란타우 섬을 조망할 수 있다. 케이블카 바닥이 유리로 되어있어 특이하다.



2일차 - 홍콩 섬

홍콩 섬은 홍콩에서 란터우 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섬이며, 홍콩 개항 이후 가장 먼저 발달한 지역이다. 이 섬 위에 홍콩의 상업 및 정치적 중심지가 위치한다. 홍콩 섬의 북쪽 해안은 빅토리아 항의 남쪽 해안선을 형성하는데, 홍콩의 발전에 있어서 크나큰 기여를 하였다. 대형 무역 선박들이 드나들 수 있는 수심이 깊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홍콩섬에서 가장 높은 산은 빅토리아 픽인데, 높이가 해발 554m이다.

홍콩 섬에는 여러 볼거리가 있다. 예를 들면 빅토리아 픽이라든지, 오션 파크라든지, 여러 사적지들과 쇼핑 센터 등이다. 홍콩섬을 가로지르는 등산로도 하이킹하기에 좋아 유명하다



das
heidelberger
schloss

홍콩섬 - 만모사원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도교 사원으로 1847년 건립되었다. 무신 관우와 문신 문창제를 모시는 작은 규모의 사원이라고 한다. 사원 안에는 언제나 소용돌이 모양의 선향이 타고 있어 연기가 자욱하다.



홍콩섬 -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800미터에 달하는 이 긴 야외 에스컬레이터는 산 위에 사는 주민들의 출퇴근 용으로 93년에 개통되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약 20분 정도 소요되며 소호지역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는데 편리하다..



홍콩섬 - 소호 시장

소호거리에 있는 재래시장. 신선한 채소와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된 고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아침을 밖에서 사먹는 홍콩사람들의 식사 장소로 아침부터 붐빈다.



홍콩섬 - 센트럴

센트럴은 홍콩의 중심 상업지구이며, 많은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부가 있다. 빅토리아 항에 근접하고 있어, 1841년의 영국 식민지 시대 초기부터 무역과 금융 활동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1997년의 중국으로의 홍콩 반환 후에는 행정상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홍콩섬 - 나눔고딕 EB, 19pt

스탠리는 원래는 어촌이었다. 이윽고 여기에 군사시설이나 감옥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관광이 막고 아름다운 장소로서, 외국인이 많이 주거지를 짓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많은 외국인을 이 거리에서 볼 수 있으며 해안가에 줄지어 선 상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점이 많다.



홍콩섬 - 리펄스 베이

고층빌딩의 홍콩 이미지를 벗어나 한적한 바닷가의 정취를 느낄수 있는 곳. 오랫동안 홍콩의 부자들이 바닷가를 따라 고급 맨션을 짓고 자신들만의 구역을 형성해온 곳이다. 리펄스베이 해변에는 수영을 하는 사람보다 해변에서 독서나 일광욕을 하면서 여유를 만끽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홍콩섬 - 릭사버스 투어

저렴한 가격에 홍콩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릭사버스 투어를 통해 홍콩섬 일대를 둘러 볼 수 있다. 순환노선으로 빅토리아항을 시작해 센트럴, 코즈웨이 베이, 완차이 등 홍콩의 명소를 지난다.



홍콩섬 - 빅토리아 피크

빅토리아 피크는 말 그대로 빅토리아 산 정상이다. 100년전부터 운행한 피크트램을 타고 이곳에 오르면 홍콩의 시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정상에 위치한 피크 타워는 반원을 기둥이 받치고 있는 특이한 형태다. 내부에 각종 쇼핑센터와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으며, 전망대도 있다.



3일차 - 구룡 반도

홍콩 4대 구역의 하나이며, 홍콩섬이 관청·비즈니스 거리인 데 반하여 주룽 지구는 식품·섬유·잡화 등이 발달한 상공업도시로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상업중심지이다.

광저우[廣州]와 홍콩을 잇는 광주철도[廣九鐵道]의 시발역이 있고 중국대륙에의 창구 역할을 한다. 관광지에 구룡공원, 침사추이, 홍콩 역사박물관 등이 있다.



구룡반도 - 스타의 거리

빅토리아 만을 사이에 두고 홍콩섬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선을 따라 마련된 산책로다. 밤에는 멋진 홍콩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매일 밤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이소룡 동상을 비롯해 장만옥, 성룡 등 유명 영화인의 핸드프린트와 동상이 있으며, 영화와 관련된 각종 기념품을 판매한다.



구룡반도 - 구룡공원

침사추이 중심에 있는 카오룽 공원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는 침사추이의 쉼터다. 또한 운동할 수 있는 공터와 휴식공간이 많아 아침 일찍부터 운동하는 시민들을 볼 수 있다. 매일 아침 시의 지도원이 참가하는 태극권 모임이 진행된다.



구룡반도 - 홍콩 역사 박물관

홍콩 역사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홍콩의 자연 역사부터 선사시대, 중국사, 아편전쟁, 일본 식민시대, 중국 반환 등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시대순으로 전시해 놓았다. 전시실마다 영상자료와 당시 생활모습을 미니어처로 제작해 놓았다



구룡반도 - 침사추이

홍콩 최대 변화가 중 하나로 고급 호텔과 쇼핑센터, 레스토랑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그와 함께 가판대와 작은 상점, 편의점, 현란한 네온사인이 공존하고 있다. 각기 다른 개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홍콩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장소다. 거리는 언제나 여행객과 시민들로 활기가 넘친다.



구룡반도 - 헤리티지 1881

홍콩 해양경찰청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고급 부티크 호텔과 쇼핑센터로 개조한 '1881 헤리티지'. 사진 속 흰색 3층 건물은 1881년 지어져 해경 사무실과 숙소로 쓰였다. 정원의 아름답디 나무와 시계탑도 그대로 남아 있다



구룡반도 - 심포니 오브 라이트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빅토리아 항구를 중심으로 33개의 대형건물들은 환상적인 레이저 쇼가 진행된다. 이 쇼를 보기 위해 스타의 거리에는 수 많은 관광객들로 붐빈다



구룡반도 - 몽콕 야시장

의류와 각종 액세서리, 먹을거리 등 판매 품목이 다양하고, 가격이 인근 쇼핑몰이나 백화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해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통시장이다. 전통시장이라는 특징 때문에 물건을 구입할 때 흥정은 필수다.

